

## 생산·소비 얼어붙고 취업·자영업자 급감

### 백척간두에 선 호남경제

#### ① 지역경제 총체적 위기

광주·전남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대불산단, 광양제철, 기아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경기 침체 여파에 신음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어깨에 걸머진 기업과 현장을 찾아 당면한 위기와 대책을 모색해 본다.

#### 자동차·타이어·가전제품

#### 주력품 7월 수출 일제 감소

#### 소비판매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 후 첫 고용률 줄어

◇생산·수출 등 경제지표 악화=26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7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출 물량은 1년 전(13억1900만달러)보다 1.4% 감소한 13억 1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주력업종인 자동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8.6% 줄어든 4억8200만 달러에 머물렀고 타이어 수출 물량은 16.7%나 줄어든 5300만 달러에 그쳤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1년 전보다 10.0% 감소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출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광주지역 수출은 71억75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72억7600만달러)에 견줘 1.4% 감소했다. 자동차는 북미 수출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가 줄어든 26억8400만달러에 그쳤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기 요건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지역 경제계 시각이다.

수출이 부진하다보니 생산도 호전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올 상반기 생산량은 22만6654대로 지난해 상반기(25만3440대)에 견줘 10.6%나 줄었고

금호타이어의 올 상반기 타이어 생산량도 2230만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2265만개)에 비해 다소 줄었다.

통계청의 '2018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11.9%) 이후 올 1분기(-10.7%), 2분기(-3.3%) 등 줄곧 감소세다. 올 1분기까지 증가세를 기록했던 소비판매도 감소세(-0.5%)로 돌아섰고 건설 수주는 78.7%나 급감했다.

◇추락하는 고용·저성장 우려=생산·수출이 부진한 현실에서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할 고용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취업자는 74만8000명으로 1년 전(75만3000명)보다 5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59.3%로 1년 전인 59.8%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고용률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경우는 지난 2016년 이후 지난 6-7월이 처음이다.

실업자는 늘었다. 지난해 광주지역 실업자는 3만명. 1년 전(2만5000명)보다 5000명 늘었다.

대표적 서민업종인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지난해 15만1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5만6000명)에 견줘 3.3%(5000명) 줄었다. 광주 자영업자 수는 올해를 제외하면 지난 2013년 2월(15만1000명) 이래 가장 적다.

자영업자가 급감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자도 줄어들어 14만명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광주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14만9000명. 지난 6월(14만6000명)을 제외하고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분배 정책도 정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소득주도 정책에도, 저소득층의 지급은 얕아지는 반면, 부유층 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등하는 '부의 부익부빈'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을 높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손 맞잡은 민주 새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새 대표 '친노좌장' 이해찬

### 최고위원엔 박주민·박광운·설훈·김해영·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의 득표율로 송영길·김진표(기호순) 후보를 눌렀다. 송 후보는 30.73%, 김 후보는 26.3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대의원(40.57%), 권리당원(42.79%), 국민여론(44.03%), 일반당원(38.20%) 투표에서 대체로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다.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강렬한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친노(친노무현) 좌장이자,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핵심인 당에서 경륜을 갖춘 원로로 꼽힌다. 30년 전인 1988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돼 교육부장관, 총리, 당 대표 등 굵직한 역할을 한 민주당 역사상 선진으로 꼽힌다.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조선·21.28%), 박광운(재선·16.67%), 설훈(4선·16.28%), 김해영(조선·12.28%) 의원이 뽑혔다. 남인순(재선·8.42%) 의원은 여성 몫으로 한자리 배정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유승희(3선)·박정(조선) 의원과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지경 기자 jkpark@

## 알츠하이머? ...전두환 광주 법정 돌연 불출석

### 출두 입장 거듭 밝히더니 공판 하루 앞두고 입장 번복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증상을 유발하는 알츠하이머(광주일보 2018년 8월 24일 1, 6면) 진단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며 법정 출석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측은 그동안 2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관련기사 6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첫 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입장을 내

고 "지난 2013년 알츠하이머 증세를 진단 받고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해준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 현재 인지능력은 회고록 출판 관련 소송을 설명해 드려도 잠시 뒤엔 설명 드린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전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은 법적 문제를 떠나 아내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매우 난감하다"며 "이러한 정신 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거나 그 진술을 통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더욱더욱 기대할 수 없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측에서 민 비서관을 통해 재판 출석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재판

부는 재판 당일인 27일 오전 중으로 재판 여부 등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태풍 '솔릭' 관동 이틀만에

### 광주·전남 최고 300mm 폭우

### 모레부터 주말까지 비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한반도를 관통한 지 이틀 만에 광주·전남에 최고 300mm에 달하는 불폭탄이 쏟아졌다. 28일을 제외하고 이번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태풍 피해복구에 차질도 우려된다.

<관련 기사 6면>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동안 강수량은 구례 피아골 294.5mm, 구례 227mm, 구례 성삼재 203.5mm, 순천 황전면 188mm, 보성 북내면 176mm, 순천시 123.6mm, 곡성 122.5mm, 광주 풍암동 109.5mm 등이다.

이날 집중호우로 순천시 주암면 용촌천이 범람, 10여 가구가 침수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27일까지 전남지역에 머물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30~8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오는 30일(28일 제외)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주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했다가 주말인 1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일단 해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풍에 의해 수증기가 유입됨에 따라 안개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